

이성중심주의와 합리주의의 한계 보여주는 추리소설

추리소설의 철학적 의미와 문학적 가치

김성곤 | 서울대 영문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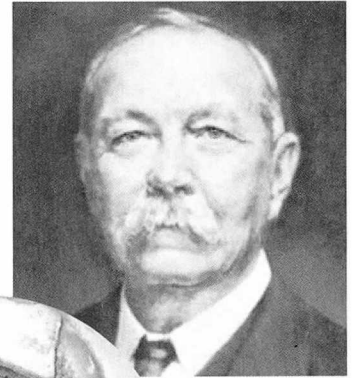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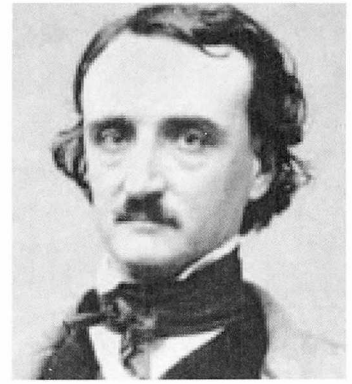
모든 추리소설은 이성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사건으로 시작된다. 여기에 추리소설의 철학적 의미와 문학적 가치, 사회학적 중요성이 내재돼 있다. 추리소설에서는 우선 기존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난다. 탐정은 범인이 파괴한 이성과 질서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합리성을 바로 잡는다. 그러나 탐정은 관습적인 이성중심주의와 합리주의의 한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에드가 앨런 포나 코넬 도일, 또는 모리스 르블랑이나 에저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추리소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잘 안다. 게다가 추리소설은 독자들의 추리력과 사고력을 현저하게 촉진시켜준다는 점에서 유익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포의 오귀스트 뒤펽과 도일의 셜록 홈즈, 그리고 르블랑의 뒤펽과 크리스티의 에르쿨 포와로는 오늘날 불멸의 탐정으로 전세계 독자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아 있다(사실 뒤펽은 도둑이지만 동시에 가장 멋진 탐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직 추리소설을 순수문학보다 열등한 대중문학 장르로 생각하고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읽기를 꺼려한다. 추리소설의 창시자인 포가 사실은 순수문학 작가였으며, 많은 순수/고급문학 작가들이 추리소설 기법을 차용해 좋은 문학작품들을 써내고 있는데도 말이다. 보르헤스나 나보코프 또는 에코나 그리엄 그린 같은 사람들은 추리소설도 얼마든지 수준 높은 고급문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뛰어난 작가들이다. 에컨대 보르헤스의 〈죽음과 콤파스〉나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윤기, 열린책들)은 순수문학과 추리문학의 가장 이상적 접목을 보여준 경우다.

물론 추리소설에도 고급 추리소설이 있고, 대중 추리소설이 있으며, 이성적 추리를 앞세운 유럽식 추리소설이 있고 터프가이 사립탐정이 완력을 써서 사건을 해결하는 미국식 범죄소설도 있다. 또 탐정의 유추로 사악한 범인이 드디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체포되는 전통적인 추리소설이 있는가 하면, 선악이 확실치 않고 범인도 분명치 않은 채 끝나는 포스트모던 추리소설도 있다.

다만 공통적인 것은, 모든 추리소설은 이성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사건으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추리소



추리소설에서 탐정은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한다. 사진은 에드가 앨런 포(위)와 코넬 도일(가운데), 도일이 창조한 탐정 셜록 홈즈(아래)

설의 철학적 의미와 문학적 가치 그리고 사회학적 중요성이 내재돼 있다. 《즐거운 살인—범죄소설의 사회사》(이동연, 이후)의 지은이 만델이나, 《탐정소설》의 지은이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 같은 사람들은 추리소설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관시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추리소설에는 어떤 사회학적 요소와 문학적 성찰이 들어 있는가?

범인과 동일시하며 범죄를 풀이하는 탐정

추리소설에서는 우선 기존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난다(좌파학자들은 그것을, 사유재산권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와 합리성의 파괴로 본다). 범죄현장에는 즉시 경찰이 출동하지만, 지배문화의 집행기관이자 제도권의 관료적 체제인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 바로 그때 등장해 명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이가 바로 탐정이다. 탐정은 범인이 파괴한 이성과 질서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합리성을 바로잡는다. 다 소간의 피해와 상처는 입었지만, 범인이 잡히고 처벌받음으로써 사회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평화는 유지된다. 그것이 바로 추리소설의 메커니즘이고, 추리소설에 내재해 있는 기본 철학이다.

그러나 탐정은 지배문화의 산물이자 제도권을 대변하는 경찰과

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제도권 밖에 있는 아웃사이드라는 점에서 오히려 범인과 닮아 있다. 또 탐정은 범인이 저지른 교묘한 범죄 행위의 과정을 역추적하거나 연역적으로 유추해 범인을 찾아낸다는 점에서도 범인과 유사한 본질이 있다. 그래서 탐정은 마음만 먹으면 가장 무서운 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범죄자 또한 가장 유능한 탐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독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탐정과 범인 사이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추리소설의 창시자 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도둑맞은 편지>에서 포가 창조한 탐정 뉘핑은 편지를 훔치던 D 장관과 자신을 완벽하게 동일시함으로써, 그의 생각을 읽어내 편지를 되찾는다. 탐정이 범인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곧 그 두 사람이 본질상 대단히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의 후계자인 코난 도일이 창조한 탐정 셜록 홈즈 역시 범인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범인의 머리 속으로 들어가 사건을 해결한다. 홈즈가 가장 두려워하는 강적 모리아티 교수도 홈즈와 가장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도일뿐 아니라 19세기 말, 추리소설 기법을 사용해 <드라큘라>를 쓴 브람 스토커 또한 자신의 소설에서 훔칠귀 사냥꾼 반 헬싱 박사와 드라큘라 사이의 유사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성주의를 초월한 새로운 가치관의 소유자 뉘핑이나 홈즈나 포와로 같은 유럽 탐정들은 폭력 대신 머리를 쓰는 탐정들인데 반해, 미국의 탐정들은 필요하면 폭력도 불사함으로써 탐정과 범인 사이의 경계를 더 한층 초월하고 있다. 예컨대 더셀 해미트의 '터프가이' 탐정이나, 레이몬드 챈들러의 고독한 탐정 말로우, 그리고 스텐리 얼 가드너의 변호사 탐정 페리 메이슨은 모두 범인들만큼이나 강하고 거친 탐정들이다. 심지어 각기 다른 주의 법을 이용해 범인들을 잡는 페리 메이슨조차도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자주 법을 이용하고 위반한다.

그러나 탐정은 어떤 의미에서 범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탐정은 경찰이나 보통 사람과는 달리, 범인이 저지른 범죄를 텍스트로 읽어내고 해독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추리소설에서 범인은 부르주아 사회의 이성과 합리성을 은밀히 파괴하고 사라진다. 그런데 그 파괴적 행위는 전통적인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파악할 수도 없는 미지의 것이다. 경찰이나 마을 사람들이 도저히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오직 탐정만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탐정은 단순히 파괴된 질서를 회복시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범인이 남기고 간 기호들을 읽어내 그 의미를 해독할 수 있는 기호학자이자 해석학자이며, 관습적인 이성주의/합리주의의 한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추리소설에서는 탐정이 이성적 추론과 기호 읽기를 통해 범인을 잡아내고 사건을 해결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시대에 접어들면서 관습적인 이성주의와 표면적 기호 읽기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성 만능주의와 낙관적 기호학에 도전하는 추리소설과 탐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보르헤스의 <죽음과 콤파스>에 등장하는 윈로트 탐정은 현장에 남겨진 기호들의 해독을 통해 살인사건에 이성적 추론과 패턴을 부여하려 하지만, 오히려 범인이 만들어놓은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붙잡혀 살해되고 만다. 범인이 오히려 탐정을 잡은 셈인 이 소설에서 보르헤스는 기호의 의미가 틀릴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이성적/합리적 추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도 많으며, 우리의 리얼리티 자체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성주의 비판과 기호 읽기의 오류 또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가의 개> (김인구, 대현출판사)에 대한 패러디인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 등장하는 탐정 윌리엄 수도사 역시 처음에는 윈로트처럼 기호들을 읽고, 이성적으로 추론하며, 연쇄 살인사건에 패턴을 부여해 범인을 잡으려 하나, 오히려 범인이 그의 추론을 역이용해 탐정의 예측에 맞춰 살인사건을 벌어나감으로써 조롱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원인과 결과가 전도된 이런 상황전개는 다시 한번 전통적인 이성중심주의나 합리주의의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리얼리티에 맞는 새로운 기호학과 해석학을 요구하고 있다.

애거서 크리스티를 읽는 즐거움과 유익함도 바로 거기에 있다. 추리소설의 여왕이라 불리는 크리스티는 이미 오래 전에 추리소설의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과 독특한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뛰어난 작가였다. 예컨대, <애크로이드 살인사건>에서 그녀는 독자들에게 살인사건을 들려주는 작품의 내레이터가 사실은 범인이었음을 작품의 마지막에 드러냄으로써, 그리고 <오리엔트 특급열차>(이상 유명우, 해문출판사)에서는 한 기차 칸에 탄 모든 승객들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설정함으로써, 현대의 복잡한 현실의 본질을 파악하는 뛰어난 해안을 보여줬다.

추리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작품의 재미뿐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철학적 성찰과 문학적 의미, 그리고 사회학적 현상까지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추리소설을 통해 재미와 유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추리소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추리소설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

김성곤 교수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럼비아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서울대 영문과 교수, 국제비교문학학회 회장으로 재직중이다. 옮긴 책으로 <문학의 이해와 비평> <중말을 기다리며 - 20세기 미국 문학과 작가들의 초상화> 등이 있고, 지은 책으로 <문학과 영화> <미국 현대문학> 등이 있다.